

김도영 멈춰도 KIA는 간다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시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갈 길 바쁜 KIA 이범호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다. (KIA 타이거즈 제공)

MLB 150년만에 첫 여성 심판 탄생

젠 파월, 1루심으로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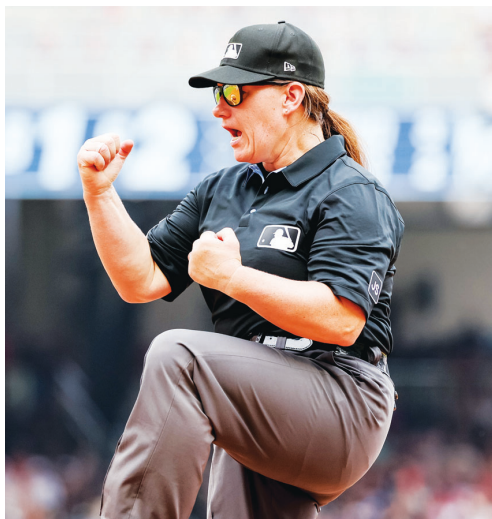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출범한 지 150년 만에 첫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으로 뛰었던 여성 심판 젠 파월(48·사진)은 1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더블헤더 1차전에 1루심으로 나섰다.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여성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1876년 내셔널리그(NL) 창설 이후 150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에 나선 파월은 1루 라인을 따라 가볍게 뛰며 몸을 풀 뒤 마이애미 1루 코치와 악수를 하기도 했다.

긴장 속에 경기를 시작했지만, 빠르게 적응한 파월은 1회초를 마친 뒤 애틀랜타 선발투수 허스턴 윌드렘의 손을 살피며 이물질 검사를 했다. 3회초 마이애미가 병살타를 쳤을 때는 1루에서 역동적인 동작으로 아웃을 선언하기도 했다. 양측 벤치로부터 별다른 항의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친 파월은 "오랫동안 기대했던 꿈을 이뤘지만,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애틀랜타가 1차전을 7-1로 승리한 뒤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은 "파월 심판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평가했다.



뉴저지주 출신으로 학창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활동한 파월은 2010년부터 미국대학스포츠 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으로 뛰었다.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수료한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1200경기 이상 심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도 참가했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여성 심판이 나선 것은 파월이 세 번째다. 시범경기를 거쳐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된 파월은 경기 뒤 자신이 쓴 모자를 명예의 전당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부상 복귀 3경기만에 좌측 햄스트링 부상…엔트리 제외 이범호 감독 “어린 선수 미래 생각…연내 복귀 어려울 듯”



‘호랑이 군단’이 김도영을 전력에서 지우고 ‘가을 잔치’에 도전한다.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또 부상으로 질주를 멈췄다. 김도영은 지난 8일 NC

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좌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말소다.

김도영은 전날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3루수로 선발 출장해 6-0으로 앞선 5회말 수비 도중 교체됐다. 무사 1루에서 윤동희의 땅볼을 처리하다가 포구 실책을 기록한 뒤 좌측 햄스트링 부위에 통증을 느끼면서 박민과 교체됐다.

김도영은 8일 창원 소재 청아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고, 구단 지정병원인 신한 병원에서 코스 체크를 한 결과 근육 손상 소견을 받았다. 부종이 있어 정확한 부상 정도는 2-3주 재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상 복귀 후 세 경기만의 이탈이자, 올 시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다.

김도영은 올 시즌 개막전이었던 3월 22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안타를 치고 나간 뒤 1루 베이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좌측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4월 25일 LG와의 경기를 통해 다시 시즌을 연

김도영은 5월 27일 키움전에서 또 허벅지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2루 도루를 기록한 뒤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고, 햄스트링 손상으로 말소됐다.

두 번째 부상이었던 만큼 KIA는 ‘완벽한 몸’을 목표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활 과정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7월 22일 재검진 결과 ‘이상 무’ 판정이 나오자 김도영의 본격적인 복귀 준비가 시작했다. 기술 훈련 뒤 1일 연습 경기까지 소화한 김도영은 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2·3일 한화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홈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르지 못한 김도영은 5일 롯데전을 통해 그라운드에 재등장했다. 하지만 롯데와의 원정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복귀 후 첫 안타는 기록했지만 다시 또 부상병이 됐다.

앞으로 40경기밖에 남지 않은 만큼 김도영의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범호 감독도 올 시즌보다는 내년 시즌과 미래에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은 “2-3주 뒤에나 검진을 다시 하니 그때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경기 수가 많이 남지 않아서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도영이가 나이가 어리니까 올해는 이렇게 다쳤지만 내년에는 안 다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머릿 속에 더 오가는 것 같다. 준비를 어떻게 시켜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그라운드에서

펼칠 수 있게 할까, 구단도 트레이닝 파트로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다. 본인이 가장 안타깝겠지만 도영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KIA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재발이 잦은 까다로운 부위고, 김도영은 폭발적인 힘을 쓰는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다.

이범호 감독은 “두 번째 부상 후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근육 안을 볼 수 없으니가 어떤 게 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이런 부상으로 고생하는 선수들을 보면 고민하는 데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고민일 것 같다”며 “부상이 1년을 쉬고 첫 계임을 해도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다. MRI상으로 괜찮다고 해서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난 뒤 근력 테스트 이런 걸 다 해도 조그마한 것에서 또 움직이면 부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답답하겠지만 도영이도 많이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아직 어린 친구라 심리랑 이런 게 걱정이 다”고 말했다.

김도영을 전력에서 뺀 KIA는 박민과 위즈덤을 맞춤형으로 활용해 3루를 운용할 계획이다.

수비가 우선 필요한 경기에서는 박민,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위즈덤을 3루수로 먼저 내세울 계획이다. 변우혁이라는 자원도 있다. 변우혁은 앞서 김도영의 부상 복귀에 맞춰 지난 3일 엔트리에 서 빠졌다.

‘전전후 내아수’에 초점을 맞춰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변우혁이 말소됐지만, 김도영이 다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창원=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에서의 7년, 행복하고 미안했다”

NC 이적 이우성 소회 밝혀

NC 다이노스 이우성(사진)이 KIA 타이거즈에서의 특별한 시간 “행복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우성은 지난 7월 28일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시즌 도중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낯선 팀은 아니다. 이우성은 NC 소속이었던 2019년 트레이드로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됐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함으로 팀에서 임지를 넓혀간 이우성은 2023년 126경기에 나와 처음 3할(0.301) 타자가 됐다. 지난 시즌에도 오른쪽 허벅지 힘줄 손상 부상을 입기 전까지 1루수 역할까지 하면서 공·수에서 팀의 우승 질주에 기여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이우성의 야구에 위기가 찾아왔다. 필요할 때 안타를 치고, 몸을 날려 공을 잡고, 한 베이스라도 더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이우성의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서 애를 태웠다.

결국 이우성은 올 시즌 KIA에서 56경기에 나와 0.219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우성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NC로 왔다.

이우성은 “왜 못 할까, 뭐가 문제일까 많은 고민을 했다. 잘하고 싶은데 너무 못 하니까 KIA에 있을 때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다. 팀한테 너무 미안



나오고 민폐만 끼치니까 한 번에 왔다”고 말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통증과 부상 잔상이 남아있었다.

이우성은 “몸은 오히려 더 좋아졌었다. 근육량도 올라가고 체지방도 더 낮아졌다. 그런데 잔상이 남았다. 이 악물고 하는 게 안 됐다. 타이거즈는 계속 지고 있었고, 내가 나가는 경기에서 계속 팀이 지니까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더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며 “6월 말인가, 7월에 갑자기 안 아팠다. 모든 게 돌아온 느낌이었다. 이 악물고 하는 게 됐다. 부상 당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정말 시즌 초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더 힘들었던 것 같

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며 “부상을 당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었다. 부상 당하고 진짜 못했다. 부상 이후에 잘 됐으면 그대로 이 어장을 텐데 안 되니까 나 혼자 빠져들었다. 결과도 안

다”고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미안함을 안고 광주를 떠나온 이우성은 “행복했다”고도 이야기했다.

이우성은 “7년이라는 시간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우승을 한 번 했다. 내가 뭐 한 것은 없지만 우승 반지라는 게 하나 있다. 또 내가 2군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올스타가 됐다. 올스타를 나간다는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다. 비록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야구를 그만두더라도 ‘아빠가 올스타 했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팬들이 귀찮은데 굳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루하루 투표해 주신 것이다.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우성은 이제 ‘최초의’ NC 선수로 또 다른 행복 야구를 꿈꾸고 있다.

“다른 팀 갔다가 돌아온 NC 최초의 선수가 됐다”면서 웃은 이우성은 “일단 책임감이 엄청나다. 최초의 영광스러운 선수가 됐다는 것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KIA에서 (최)행우 선배님이 보여주셨던 것들, 후배들을 대하는 자세나 모습을 여기에서 후배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베테랑이 돼 돌아온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창원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비정규직’ 고지원 KLPGA 생애 첫 우승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제패…2027년까지 투어 모든 대회 출전 자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전 경기 출전권이 없어 빈자리가 생기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 고지원(사진)이 생애 첫 우승을 따내 인생 역전을 이뤘다.

고지원은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북서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정상에 올랐다.

노승회를 2타 차로 따돌린 고지원은 데뷔 3년 만에 61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2022년 시드전을 거쳐 2023년 데뷔한 고지원은 신인 시즌과 두 번째 시즌 모두 상금랭킹 60위 밖으로 밀려 시드를 지키지 못한 바람에 시드전만 세 번 치러야 하는 등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다.

작년에 치른 세 번째 시드전에서 42위에 그친 고지원은 올해는 주로 2부인 드림투어에서 뛰면서 KLPGA 투어는 빈자리가 나올 때 겨우 출전할 수 있는 ‘조건부 출전권자’였다.

이 때문에 상반기 17개 대회 가운데 9개 대회에

만 출전할 수 있었고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는 시즌 10번째 출전이다.

고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이 대회를 마치고 드림투어에 복귀할 예정이던 고지원은 이번 시즌 남은 KLPGA 투어 대회에 모두 출전할 자격을 얻어내 드림투어 활동은 조기에 마감하게 됐다. 고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2027년까지 시드를 확보했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은 고지원은 상금랭킹 19위(3억3727만원)로 상승했다.

7일 전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에서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했다가 배소현에게 역전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했던 아쉬움을 말끔하게 씻어냈다.

이미 3차례 우승한 언니 고지우에 이어 고지원도 챔피언에 오르면서 박희영과 박주영에 이어 KLPGA 투어에서 두 번째 자매 우승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지난 6월 고지우가 맥콜·모나 오픈에서 우승했기에 자매가 같은 시즌에 우승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

